

깊고 푸른 얼굴

2015년 6월 창간·시험판2호

www.lamp.kr

2015년 7월호

남포교회의 신앙교육

강 선 | 남포교회 목사

저는 지금까지 주일학교 부서를 맡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우리교회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논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 선생님들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르치신 졸업생들이라고 할 청년들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의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01년에 남포교회에 교육전도사로 부임하여 처음에는 청년 2부에 있었고, 그 후에 청년 1부와 새가정부를 거쳐 지금은 청년 3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3면에 계속

몇 가지 고백

장연우 | 중등부 교사

안녕하십니까? 중등부에서 성가대 지휘로 섬기고 있는 장연우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성가대 연습을 시키면서 느꼈던 점을 몇 가지 고백하려고 합니다. 성가대 연습을 시키다보면 여러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말을 참 잘 듣고 연습도 같이 해 주고 찬양도 잘 해주는 아이들도 있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뻔뻔질하고 악보 세워놓고 휴대폰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 3면에 계속

두 가지 감사

황예진 | 초등 2부 교사

안녕하세요? 전 청년 1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초등 2부에서 교사로 섬기는 황예진이라고 합니다. 전 학생 때 워낙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 특별했던 에피소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추억하고 있는 일은 제가 찬양팀을 했었을 때 어린 저희들을 따뜻함으로 섬겨주고 이끌어주신 선생님들, 여러 모양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목사님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초등2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이끌어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란 걸 매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제가 학생일 때) 저를 가르쳐주셨던 선생님이 많이 생각납니다. 저희가 당시에는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께 내뱉듯 농담을 던질 때도 목소리 한 번 높이지 않고 항상 따뜻하게 웃음으로 잘 넘겨주셨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을 자각하지 못한 채로 항상 받아만 온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그동안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9면에 계속

Issue 이슈		News 뉴스	
강 선	남포교회의 신앙교육	사랑부	따뜻, 따로 또 같이
장연우	몇 가지 고백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미리보기
황예진	두 가지 감사	유치부	성경암송대회
		초등1부	함께 가요, 여름수련회
		초등2부	교사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초등3부	여름밤, 여름수련회에 부쳐
		중등부	예배당에서 들린 토도로 노래
		고등부	성도는 익어가는 열매
Series 연재		Mission 선교	
안성희	시연아빠의 다세이(2)	이혜신	일터방문여행을 마치고
Notice 공지			
편집부	광고 및 공모전 안내		

이 달의 <깊고 푸른 얼굴> 읽기

메르스(MERS)와 메르시(merci)

윤철규 | <깊고 푸른 얼굴> 편집자

남포교회의 교육부서 소식지인 <깊고 푸른 얼굴>이 두 번째 시험판이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첫 번째 소식지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교회 교육부서에 소속된 우리 모두가 더욱 따뜻한 사람들이 되고, 어떤 효용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자체로 이 자리에 부름 받아 교사의 명예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데에 이 소식지라는 도구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호에는 지난 교사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실었습니다. 강선 목사님께서 우리교회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오랜 기간 남포교회2세 청년들을 겪으신 경험으로 귀한 질문을 던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장연우 선생님과 황예진 선생님은 우리교회의 교회학교를 거치면서 훌륭한 청년들로 성장한 후 자신들의 후배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이 두분은 자신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을 비롯한 모든 교사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번 호에서 각 부서의 소식들에는 여름 수련회에 대한 광고가 많았습니다. 어떤 부서는 작년에 했던 수련회를 상기시키며 올해에도 기대해도 좋다는 식으로, 또 어떤 부서는 수련회 장소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강조하는 식으로 수련회에 대한 광고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시로 그런 마음을 표출하신 부서도 있으시지요.

이 소식지가 배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일치감치 수련회를 마치신 부서도 있겠지만 대부분 수련회를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예년과는 달리 수련회를 방해하는 새로운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모두를 근심하게 만들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입니다. 아마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것 때문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가 확 줄 거라는 예상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여름수련회를, 각자의 부서를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분들에게 앞에서 언급했던 두 청년 선생님들의 마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르시(merci : 고맙다는 뜻의 불어)!’

몇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식지는 모든 교사 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내용의 글도 기꺼이 환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그 부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른 부서의 선생님들도 아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부서 소식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깊고 푸른 얼굴>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식지의 뒷면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뜨거운 여름에도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메르시!

1면에서 ▶ 자기들은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 보입니다. 시험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타일러도 보고 부탁도 해 보고 정말 화가 날 때는 혼도 내 보았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주도 안 가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중고등부 뮤지컬을 준비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말 잘 듣는 아이들만 데리고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열어 놓고 은혜롭게 뮤지컬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에 소소한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말이 없고 조용하던 친구가 활발하고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 얼굴을 자주 비친다는 점입니다. 또 제 속을 그렇게 썩었던 친구가 어느 순간은 “얘들아! 우리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집중해서 하자. 나이도 먹었는데.”라고 하더군요. 그 친구 덕분에 그날은 해롭게 찬양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니다. 제가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사실에 감격했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것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 제가 초등부와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를 거치면서 저를 그런 마음으로 봐주셨는데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또 아이들에게 통로가 되는 교사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자 주 : 이 글은 2월 24일에 있었던 교사세미나 때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교회의 2세들에게는 기복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책임감이 부족해 보입니다.

1면에서 ▶ 그러니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남포교회 교인들을 두루 만난 셈입니다. 처음 왔을 때 만났던 청년 중 한 분이 지금 초등 2부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박해준 선생님입니다. 그때 박선생님은 청년2부 고참이셨지요. 올해 대학을 입학하는 청년이 96년생들일 텐데, 제가 처음 만났던 청년들이 75년생이었으니 그간 남포교회에서 저는 20년 터울의 청년들을 만나 본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주일학교를 졸업한 남포교회 2세들이 청년들을 만났던 경험을 몇 가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출신의 청년들의 기도가 굉장히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 다 주님의 뜻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잘 견디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듣고 ‘아, 이런 기도는 거의 득도(得道)의 경지인데, 더 무슨 교육이 필요하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청년 1부에서도 들어봤고, 청년 3부에서도 들어봤습니다. 신앙의 완숙기에 할 법한 기도를 20대 초반에도, 30대 중반에도 하는 모습을 본 것이지요. 그런데 그다음 경험이 저로서는 좀 난감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청년이 그 훌륭한 기도를 한 후에 그 다음 주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보면, 무슨 일로 예배를 빠진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한주나 두 주 후에 아주 해맑은 미소로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합니다. 때로는 청년들끼리 서로 만나면서 너무 반가워합니다. 서로 한 달 만에 봤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그들을 한 달 만에 본 것은 아니고 계속 보아 왔는데, 그 친구들은 각자 격주로 왔기 때문에 서로는 한 달 만에 보게 된 것이지요. 율법주의에 따라 주일을 지키지는 않는 것이 맞지만, 청년들을 보면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교회의 2세들에게는 독특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한국교회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교육의 결과들이 청년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위에서 살펴본 기도의 내용처럼 기복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뭘 얻으려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주님의 처분에 맡겨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이 있죠. 그러나 또 다른 한 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책임감이 부족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교회 청년부를 보면, 청년 1부 때는 고등부에서 졸업한 청년들이 주류를 이루지요. 그래서 2세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교회 청년부는 성인부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박목사님의 설교에 매료된 청년들이 제법 옵니다. 그래서 청년 2부에 가면 밖에서 들어온 청년들이 반을 채우게 됩니다. 청년 3부가 가면 2세들의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지고 대부분은 밖에서 온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새가정부에 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새가정부에 있었던 한 20커플 중에 교회 2세는 한 두 커플 정도 있었던 기억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졸업한 2세들을 보면, 교회에 제일 오래 다닌 사람들인데 이상하게도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온 청년들을 보면 질려서 청년부 밖으로 자꾸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나’ 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으로는 꾸준한 신앙생활이 감당이 안 돼서 자꾸 부서 주변부로 나가게 됩니다. 실제로는 교회에 제일 오래 있었던 고참들이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주변인인 것처럼 느끼는 청년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교회에서 꾸준히 성장해온 청년들하고 또 밖에서 온 청년들하고 잘 섞이면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스럽게 한쪽만 있고 한쪽은 잘 안 보입니다. 그 안 보이는 2세 청년들이 청년부에서는 보기가 힘들게 되는데 어느 때가 되면 다시 한 번 만나게 됩니다. 옛날에 봤던 청년들이 유아세례교육을 할 때가 되면 아기들을 안고 나타납니다. 그때 보고 그다음에 또 언제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새가정부에서도 구역에서도 잘 만나기 어려우니까요.

우리교회 청년들은 수련회 가면 아주 즐겁게 놀고, 잘 먹습니다. 전교인 수련회처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멋있고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세대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간혹 이런 요청을 하십니다. 자녀들을 보니까 신앙이 있는 건가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어디 기도원이라도 데려가서 불이라도 받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말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때는 뭘 모르니까 율법주의로 굴린답니다. 주일에 예배 빠지면 천벌을 받을 것처럼 가르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은 인격적이지 않다, 라며 복음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방법은 우리가 배운 신앙의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지요. 우리에게는 박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규모 있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저의 아이가 어렸을 때 다른 교회 유아부에 다녔는데, 거기서 불렀던 유아부 찬송을 듣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교회들에서 애창되는 노래인데, '예배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로 시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실까요. 이 노래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화 내실거야' 가 이 노래가 가르치는 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예배시간에 조용히 하라는 의미에서 예배 시간에 애창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신앙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겨우 그런 걸로 화내지지 않으며 주일에

빠진다고 다리를 분질러 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우리는 남포교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것인가, 내 게으름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해먹어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교회의 교육 부서를 거쳐 온 청년들은 그런 부분에서 아직 잘 답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일학교에 모여 있는 어린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도울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분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인격답게, 존엄한 인격을 가지는 사람들답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교우들을 도울 것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주제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아이들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존재로 대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부서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아름답고 멋있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 장점들이 많은 남포교회 2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주일학교를 통해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으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애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 선 목사 : 남포교회 목사

(편집자 주 : 이 글은 2월 24일에 있었던
교사세미나 때 강선 목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수정하여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나 재정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은 문제
가 되지 않습니다. 유명한 작
가가 될 필요도 없고 철학자
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주어
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만이 가지는 생명과 진리와
영광과 명예를 증언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삶에
나 담으실 수 있습니다.**

- <다시 보는 사사기> 4강
(2015년 8월 출간 예정)

따또, 따로 또 같이

교회 안에서 가장 선호하는 봉사란 어떤 것일까? 일반적으로 직업이든 봉사이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자면 아마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어떤 것 인지를 먼저 알아야한다는 조언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신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섬김이라는 봉사를 통해 신자로서의 만족에 동참하려 한다. 그렇다면 그 만족을 위한 이상적인 봉사 조건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이어야 한다. 둘째,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어야 한다. 셋째,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봉사를 찾되 그리 쉽지 않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명확한 봉사 정체성(volunteer identity)을 가진 신자라고 정리 할 수 있는 반면, 봉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두 가지 정도를 충족하면서 때로는 만족하면서 때로는 불만족하면서 더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교회내 사랑부에서 교사역할을 담당하면서 고비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그 중 몇 가지를 정리하여 함께 나누고자 한다.

part1. 교사의 역할을 바꾸어라

상당수 많은 교사들은 교회교육의 주 대상이 성인이라는 양적성장 시대에 신앙훈련을 받았다.

하지만 교사에게 이미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맹목적으로 따르기에는 세상의 관습, 학교내 교육, 그 시대의 교육방식 등이 지금에 아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 이는 순응보다는 교사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역할과 교사의 역할 그리고 교회내 자신이 속한 부서라는 특수성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함을 말한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말하는 정해진 길이 명백하게 보이더라도 교사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만들어낸다면 교사에게 어떤 학생이 배정되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환경이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아이와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다.

part2. 활동 장소를 바꾸어라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장소를 찾아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분야나 여건을 만들자는 의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할 수 없음을 논하지만, 이는 익숙한 그 자리에 안주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에게 적합한, 아이의 상황에 맞는 환경을 지금(Here & Now) 만들어야 한다. 의외로 교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와 환경은 곳곳에 위치하고 있다.

part3.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이 우선이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Knudson에 의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란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적인 진리들을 숙고함으로써 얻은 깊은 진리들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기독교 세계관은 단순히 성경 내용을 체계화한 것이 아니라 체계화된 진리에 대한 성령의 조명을 필요로 한다. 즉, 교사는 성경에 근거하여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이해한 내용, 이 둘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교회 안에서 ‘사랑부’는 사랑부이기 때문에 특별하거나 부족한 것은 아닌 듯하다. 이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랑부이기 때문에 함께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아이들이 보고 듣고 먹고 걷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사랑부 아이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약하기 때문에 보고 듣고 먹고 걷기 위해 보강구가 필요하다. 일반신자들이 오고가는 데 불편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사랑부 보호자들은 제한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동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자가운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이로 인해 별도의 주차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내에서 누가 누군가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또 같이(따또)한 방향을 향해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삶인 것 같다.

홍미경 집사 : 사랑부 교사

2015 여름성경학교 미리보기

2015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여름성경학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아부에서 가장 신경 쓰고 진행하는 행사 중에 하나인 여름성경학교가 2015년 7월 18일, 19일 이틀 동안 있을 예정입니다. 매년 유아부 여름성경학교에서는 항상 주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와! 예수님이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레디~ 고!” 입니다. 유아부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기쁜 소식을 우리아이들이 배우고 익히며 마음껏 누리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단체사진

올해 여름성경학교 첫째날(18일)에는 선교관과 각 교육관을 이용해 4가지 코너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코너는 “악기 만들기”, 2코너는 “쿠키, 경단 만들기”, 3코너는 “십자가 목걸이 만들기”, 4코너는 “예수님 행적 따라가기” 이렇게 4가지 코너 학습을 통해 기쁜소식의 의미를 하나씩 알아가 볼 예정입니다. 이외에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을 운동회, 그리고 물놀이 및 비누 방울 놀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고파진 아이들과 부모님을 위해 부장단과 주방도우미 선생님들께서 맛있는 간식과 점심을 준비하신답니다.

둘째날(19일)에는 주일 유아부 예배를 드리고 분반공부 시간을 이용해 자동차 이야기책, 양머리띠 만들기 놀이를 할 예정입니다. 2015년 유아부에서 준비중인 여름 성경학교가 무척 궁금하시죠?? 이번에는 예수님 다음으로 어떤 인형들이 인기를 얻을지 궁금하네요.(올해도 이쁜 인형들이 포토타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중인 많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부장단에게도 힘내라고 박수 많이 쳐주시고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미니운동회



인형들과 포토타임

성경암송대회

6월 28일 주일 유치부 후속활동은 성경암송대회였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암송한 말씀을 잘 외워야지!’
 ‘나 아직 글씨도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오늘 스티커 많이 받고 싶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유치부 예배에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성경암송대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치부서에는 매일 암송하는 말씀으로 4개월에 한 번씩 성경암송대회가 있답니다.



오늘은 3월, 4월, 5월, 6월의 말씀을 암송하는 날이에요.
 4개월 동안 말씀을 열심히 암송한 실력을 발휘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예배 전부터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계속 외우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읽는 것이 조금 서툴러서 잘 외우지 못했다고 자신없어하기도 하지요. 또 스티커를 많이 받고 싶은 마음에 눈이 반짝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드디어!! 암송대회가 시작 했어요~~!!



각자 암송확인카드에 자기의 이름을 쓰고 조그마한 손으로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선생님과 반 친구들과 함께 3월부터 6월까지의 부스를 돌아다니며 열심히 외운 말씀을 큰소리로 외쳤어요.

병아리 같은 입을 크게 벌려 말씀을 외우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예쁘던지

모든 친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과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께서도 유치부 친구들의 모습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은 헛되지 않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믿음이 건강히 자라나게 도와줄 거예요!

지금처럼 말씀가운데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유치부가 되길 바라요♡♡



함께 가요, 여름수련회

우리 동네

서화숙

북한강 흘러가는
경춘선 작은 마을

강물과 계곡 위로 아침 물안개
질푸른 산 사이로 흰구름 흐르고

앞산에 핀 노오란 들꽃 무리
해님 보고 까르르 눈맞추는 곳

언덕 위 하얀 조팝꽃 밤새 수줍어
말 못하고 달님 향해 웃음짓지요

오늘도 그 강물에 여린눈물 씻어내며
두런두런 이야기꽃 나누는 정겨운 우리 동네

북한강변을 연결하는 청평호는 1일 드라이브 코스로 매우 아름답다. 요즘 가뭄으로 물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곳은 호수를 이용한 다양한 물놀이 장소로, 또 각종 M.T. 장소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가 가는 수련회 장소인 '고성리' 가 바로 이 청평호 옆에 있다는 사실이다. 청평댐에서 북쪽(남이섬 방향)으로 호숫가 길을 따라 진행하다보면 왼쪽 언덕에 '쁘띠프랑스' (프랑스식 마을)를 만나게 되고 그곳을 지나면 고성리 '상수리나무펜션' 에 도착하게 된다. 호숫가 숲속에 자리잡은 펜션 ...

공기가 맑아 서울에서 미처 보지 못한 별무리 장관을 감상하게 될 것이고, 청평호를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조용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불러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2박 3일은 너무 짧고 아쉬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벌써 염려된다.



교사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1. 좀 지난 얘기인데 교회 앞에 보고 드릴게 있습니다. 초등2부에서는 5월 24일 연휴에 1박 2일 일정으로 교사 수련회교를 다녀왔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광주의 광림교회 수도원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고, 모처럼 선생님들과 함께 서울을 벗어나는 것도 좋았습니다.

‘기도동산’ 이라고 곳곳에 예수님의 일생을 조각화해 놓은 곳을 따라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산 정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에 도착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30여년 가까이 학교에서 교사로 계시는 김진경 선생님의 지도 아래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초등 2부 연령대인 3~4학년 아이들과 토크식으로 수업이 가능하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알겠는데 3~4학년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도달할 목표가 생겼습니다.

선생님들과 깔깔대며 교회 얘기, 개인적인 얘기, 아픈 사람 얘기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 1시 반이 넘었습니다. 가장 선배이자 60대 후반이신 우순숙 선생님께서도 온화한 미소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아침 먹자마자 다시 모여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체력들이 대단했습니다. 여전히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원민 부장집사님이 광림교회에서 수도원 앞산에 ‘기도원 건물’ 을 새로 지었다고 보여 가자고 했는데, 우리는 막상 거기 가서 ‘에베소서’ 를 끝까지 소리내어 읽어야 했습니다. 다 읽고는 돌아가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빠박한 일정은 도대체 누가 짠거야, 그러면서도 진심으로 즐거워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60대 후반까지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박장대소하며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여운이 가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청년부 시절로 되돌아 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2. 이제 수련회는 진작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수련회에서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만나면 우리는 서로를 보는 게 기쁘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 2부에서 5년째 교사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분위기의 비결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연장자부터 젊은이까지 다양한 교사들이 오로지 아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와 있음, 교사들이 초등 2부를 교회 내의 ‘작은 공동체’ 로 보고 서로를 섬기는 대상으로 보고 있음, 젊고 예쁜 신 김정현 전도사님이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헌신적으로 섬겨 주심.....과연 초등 2부는 30년 된 우리 교회의 수고의 열매입니다.

#3. 글을 쓰고 보니 제가 너무 초등 2부 위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사역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은혜들이 연결되어서 우리 교회가 ‘빛의 자녀’ 요, ‘하나님의 손길’ 로 쓰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초등부 여름 수련회 준비에 더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못하신 학부모 교우님들 애들 꼭 보내 주세요요! ^^

묵묵히 교육부서를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면에서 ▶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를 담당해 주셨던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교회 수련회를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교제할 시간이 많아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서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서정걸 목사님, 김창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저에게 항상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셨어요. 밤새 아이들과 함께 게임도 하시면서 어울려주셔서 너무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덕분에 친구들과 교제하는 데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부서를 묵묵히 뒤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여기서 전체를 통틀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청년들도 함께 교사로 섬기시면서 소소한 행복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학교 일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교회 일까지 해야 하고 정신없이 바쁘지만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함께 교육부서를 섬기신다면 청년의 때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발표를 마칠 것입니다.

(편집자 주 : 이 글은 2월 24일에 있었던 교사세미나 때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름밤, 여름수련회에 부쳐

초등 3부 수련회 소식!!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유네스코 평화센터에서 초등 3부 여름수련회가 있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경치도 좋은 그곳에서 경치보다 더 좋은, 즐겁고 유익한 수련회를 즐길 준비하세요! 수련회 소식과 함께 작년 수련회 첫날밤에 초등 3부 한 선생님께서 시를 지으셨는데 그 시를 소개합니다.



여름밤
-여름수련회에 부쳐-

이 재 철

비 그친 산기슭에는
잠자리 떼가 수도 없이 날았습니다.

아직 해도 남아 있어
석양을 기다리는 구름들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기웃했습니다.

누구도 대답을 못하고
하늘은 얼굴마저 붉어졌는데
잠자리 떼를 스쳐온 바람이 말했습니다.

여름밤이 시작되었어요.

모두 반딧불이 가로등 밑으로 모이시래요.

은빛 별 몇 개가 벌써 떴습니다.

(2014. 7. 26)

예배당에서 들린 토토로 노래

주일 예배 시간, 공부에 지친 아이들이 주일 아침 10시까지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큰 은혜가 된다. 그러나 지친 아이들이 예배 집중하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듣는 등 마는 등 하면 교역자와 교사들도 사람인지라 맥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열심히 예배드리고 설교와 공과시간에도 경청하는 훌륭한 아이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원하는 집중력 있는 태도를 잘 보이지 않는다.

그게 아이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니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주긴 하지만 매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은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6월 마지막 주와 7월 첫째 주 중등부 예배에 아이들이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평상시와 사뭇 달랐다. 눈망울이 초롱초롱 빛나는 아이들이 있었다.

심지어 한 번도 웃지 않던 아이들이 살짝 미소까지 머금으며 집중하는 모습도 보였다. 중등부에서는 가끔 영화 설교를 한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은 영화를 볼 때도 있지만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고 소위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을 듬뿍 담은 영화도 보기도 한다(물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은 아예 보여주지 않는다).

▶ 다음 면에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미디어가 전해주는 세속적 가치관을 그대로 흡수하는 아이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이다.

이번에 본 영화는 일본 애니메이션 중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웃집 토토로'였다. 이 영화는 보통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을 많이 담은 일반 일본 애니메이션과는 조금 다르다. 따뜻한 가족애, 인류 보편의 사랑의 감정을 잘 보여주는 영화이다.

그래서 첫 주에는 긍정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왜 사람들이 이 영화에 그토록 열광했는지"에 대해 답하면서 성경적인 바른 이웃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에 대해서 나누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웃집 토토로' 속에 있는 일본인의 애니미즘적 세계관에 대해서 분석해주었다. 토토로가 그저 귀여운 동물이 아니라 도토리 나무의 요정이고, 일본 사람들은 이처럼 뿌리 깊게 사물이나 식물 그리고 동물들에게 비는 사람임을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소개해주었다.

무조건 비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대안으로 찾음을 알려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줘야 함도 역설했다. 목사님이 토토로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이들에게는 큰 흥미가 되었나보다. 그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망울을 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매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문화와 선호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여서 감사했다.

또한 무조건 세속적 문화를 보지 말고 하거나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며 바른 대안까지 내어놓을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선생님들은 공과시간에 말이 없던 아이들이 일본 애니메이션 얘기로 한참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물론 말 없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말이다.



성도는 익어가는 열매

성도는 포도나무 열매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비유하여 말하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때 가지로 칭해지는 것은 열매까지 영양분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포도나무요 그의 사도들이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사도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 사람이 성도입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내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신 계시입니다. 성도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지만 사도의 증거를 진리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증거 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자신의 뜻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신 사람이 곧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선지자나 사도들 기록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이 성도에게 전달되게 하는 통로 그것이 바로 선지자요 사도들입니다. 선지자나 사도는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을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성도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면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떠난 선지자나 사도들 증거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혹자들은 가시나무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흉내를 내지만 그것은 사망의 열매입니다.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현재도 많은 이론을 말하지만 사망으로 인도하는 속임수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를 통해 성도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 가르침을 따라 오랜 세월 수많은 성도가 존재하고 또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하고 현재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차기까지 포도나무 열매는 꽃피고 자라며 익어갈 것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가지에 붙어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익어버린 열매가 아닙니다. ▶ 다음 면에 계속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꽃피고 지고 또 작은 열매로 시작되어 자라나 익어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떠나 자라나는 열매는 결코 익어갈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포도나무가 공급하는 영양분을 전달받아야 제대로 익어갑니다.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말씀을 공급 받아야 성도가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포도나무가 누구인지 안다고 해서 결코 열매로 익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가 무엇인지 안다고해서 열매로 익어가고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직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영양분을 가지를 통해 먹고 자라야 열매로 익어갑니다. 농부는 포도나무에서 꽃피고 열매되어 성장하며 익은 다음에 추수하고 저장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15장1절)"

농부는 하나님이시오,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오, 포도나무 가지는 선지자와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맺어지는 포도나무 열매가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꽃피고 열매 맺은 다음 향기로운 열매로 익어가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열매가 만약 포도나무를 떠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결국 사망에 처해질 것입니다.

김영훈 집사 : 고등부 교사



이달의 사진

섭씨 34도의 무더운 여름날의 오후에 다음 날 있을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유치부 선생님들의 모습이 담긴 이 사진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메르시!



시연아빠의 다음세대 문화 이해하기(2)

제목 : 눈치가 없는 우리 아이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손잡으면 음~♪♫”

유명한 초코파이의 CM송 가사이다. 한국의 정서를 참으로 잘 반영한 가사이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위가사처럼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차린다. 그래서 ‘남의 집에 몇 년 얹혀살았더니 는 것은 눈치뿐이었다.’ 는 말도 있고, 분위기 파악 잘 못하는 사람에 ‘너 눈치 좀 있어라’ 라고 핀잔을 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눈치가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를 보면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 이란다. 정의를 좀 더 보충해보자면 눈치는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으로 어려운 게 말하지 않아도 미루어 알아차리는 것이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말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간파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민족 정서상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와 상대방의 표정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그 짐작이 거의 맞다. 그렇다면 이런 눈치 문화가 우리의 다음세대 안에도 그대로 남아있을까? ‘너 눈치 참 없구나, 눈치로 알아야지’ 라는 어른들의 말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과연 통할까?

얼마 전 출시된 책 「세이빙 다빈치」에서 낸시 피어시는 뉴욕 리더머 장로교회 담임목사인 티모시 켈러의 말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지금 세계 최상급 대도시들의 문화·가치 체계가 전 세계의 언어, 부족, 민족과 국가로 전해지고 있다. 이 말은 아이오와나 심지어 멕시코의 아이들이 자기 동네의 어른들보다 LA와 뉴욕의 젊은이들과 더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심각하다. 같은 지역의 어른들이 자신의 아이들과 말이 통하기를 바란다면 대도시의 범세계적 문화와 그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소도의 십대들은 같이 지내는 부모와 목회자, 교사들보다 대도시의 십대들과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성세대와 다음세대는 한국이라는 같은 영토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화, 미디어의 영향 등으로 다음세대의 문화는 같은 영토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의 문화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하버드대 교육대학원의 조세핀 김 교수는 그의 책 「교실 속 자존감」에서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거나 고집이 세다는 어른들의 평가는 맞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어른 세대처럼 전통적인 한국 문화 안에서만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 문화를 보면 서구에서 유행하는 것이 그대로 한국에서도 유행한다.

조세핀 김 교수의 분석을 더 살펴보면 기성세대와 다음세대의 문화적 충돌과 뒤엉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모바일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이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웃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을, 우는 모습을 표현할 때는 T.T을 많이 사용한다.

주로 감정이 눈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표현방식이 많이 다르다. 서구 사람들은 웃는 모습을 :)으로 많이 표현한다. 슬픈 표정은 :- (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서구의 감정 표현 이모티콘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처음 보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전형적인 한국 문화권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서구 사람들은 감정이 눈이 아닌 입으로 주로 표현된다. 그래서 서구는 한국보다 좀 더 단순하고 솔직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비교적 나이 차이가 나는 지금의 아내와 연애할 때 처음으로 :)란 이모티콘을 받아보았다. 난생 처음 본 이모티콘이었다. 그 뒤로 종종 이 이모티콘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포레 친구들은 그런 이모티콘 좀 쓰지 말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 몇 년 차이 나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세대차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의 다음세대는 한국에서 살지만 동시에 서구 문화권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어른들의 ‘눈치로 파악하라’는 이 방식은 잘 통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문화 차이이다. 직접 입으로 표현해줘야 한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하고, 좋으면 좋다고 직접 얘기해줘야 한다.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얘기해줘야 한다.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웃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말해주지 않아서이다. 물론 한국의 문화와 서구의 문화를 이분법적으로 무 자르듯 재단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 14 면에 계속

일터방문 여행을 마치고

※ 편집자 주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청년들이 여름휴가를 이용하여 선교지 방문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으로 8월 1일-8일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어린이 성경학교도 해주고, 경로잔치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올해도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작년에 다녀왔던 청년 중에 한 명인 이혜신 자매의 글을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일터방문여행을 마치고

이혜신(청3)

제가 남포교회에서 배운 전도, 선교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하게 이웃을 품는 것, 그러다가 감동받은 이웃이 “넌 어쩜 이렇게 따뜻하니?” 라고 물어오면 “나 실은 교회 다녀. 예수님을 믿거든” 이라고 멋있게 답하는 것. 그러나 실천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간혹 가슴으로 큰 감동을 느끼면서도 외롭거나 기쁘지 않을 때,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나 스스로가 흔들리니 고르게 주변을 살피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으로 다가가려면 이웃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고, 그러려면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그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그분을 더욱 잘 알고 싶었습니다.

이번 청년지도자훈련학교(이하 청지훈) 프로그램과 일터방문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할만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아니, 이미 내게 주신 선물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공동체였습니다. 청지훈 청년들 하나하나 제각기 다른 빛을 내는 사랑스러운 지체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강요하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안에서 (체력의 문제는 제외하고) 자유롭게 즐겁게 누릴 줄 알고, 주체적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형제자매들이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우리임에도 서로 챙기고 격려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을 제외하고는 거의 웃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남포교회에서 배운 전도, 선교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걸으면서도 노래가 나오고 사진 찍을 때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는 사진 찍히는 것에 쑥스러움도 많고 적극적으로 지 않은 편인데, 제가 소외되지 않도록 많이 챙김을 받았습니다. 저를 챙겨준 지체들의 마음은 강제된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함께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터키인 가정을 방문하고 나올 때에 선교사님께서 그들의 문화에 대해 알려 주신 게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에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들의 대접이 선행으로 기록된 듯이 마음에 만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는 평가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즐거움과 감사, 서로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서로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지체들의 몸에 밴 따스함과 부지런함, 자발적인 행동에서 섬김의 방법을 배웠고, 닳고 싶은데 그 마음과 깊이를 어떻게 따라갈까 행복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 다음 면에 계속

13면에서 ▶

낸시 피어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첫 번째 규칙은 ‘네 청중을 알라’ 라고 한다.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그들의 문화, 세계관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다음세대에게 바른 가치관을 전달하려면 먼저 그들과 관계가 되어야 한다. 관계가 되려면 소통이 되어야 한다. 소통을 잘하기 위한 첫 단추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요즘 애들은 이상해, 요즘 애들 이해가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그들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반 아이들이나 자녀들 또는 손주들에게 문자나 카톡을 보낼 때

안녕? :)

이렇게 한 번 해보면 어떨까? 그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다음세대에게 바른 가치관을 전달하려면 먼저 그들과 관계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선물은 제 노력이나 실력과 상관없이 후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터키에서 만난 두 분 선교사님께서는 우리가 그분들 사역에 기여한 정도나 그분들과의 친밀도와 상관없이, 남포교회 공동체에서 온 청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나도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단순 여행이었다면 교체하기 힘들었을 터키 현지 청년들에게서도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환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난 세 그룹의 학생들 모두 한국과 한류를 좋아하며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고 싶어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소녀는 우리가 한국의 (아이돌) 문화를 잘 모르는 것을 두고 “우리는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신들은 왜 한국을 사랑하지 않느냐”는 물음을 던져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환영 뒤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역사와 그들의 조상들의 희생과 형제라는 인식, 한국의 드라마와 아이돌이라는 콘텐츠를 만들어낸 사람들과, 그들과 선교사님 사이에 이어져오던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정황과 시간들을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마치 준비하셨다가 우리를 맞아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질문을 곱씹을 때에 저에게는 그 말이 “예수님이라는 귀한 분을 아는 네가 왜 그분을 더욱 사랑하지 않느냐, 왜 흔들리느냐”는 물음으로 투사되기도 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대면하는 장면을 미리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나그네 대접은 매우 정감이 있었습니다. 말라티아 가정 방문 시에는 아버지를 비롯하여 온 가족이 준비한 푸짐한 음식으로 대접받았고, 카이세리 대학생들은 라마단 기간이라 본인들은 단식을 하면서도 평소 기상시간보다 3시간 이상 일찍 일어나서 우리에게 손수 아침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선물로 대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규모와 기발하신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카파도키아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선배가 걸었을 길에서 우리는 석회질로 된 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지하를 파서 도시를 만든 것을 보았지만 그 모든 배경이 되는 자연과 평원은 더욱 멋지고 광활했습니다. 수많은 버섯바위, 모자바위, 낙타바위, 비둘기계곡 등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게 넓은 자연이기에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그 길을 걷기에는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거쳐 전파된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는데, 자의로 이슬람을 선택하는 사람의 수보다 자의로 기독교를 선택하는 사람의 수가 많으며, 터키에서도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문하고 얼마 되지 않아 소식을 듣게 된 한 터키인은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 받음으로 인해 남편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 모두의 기도제목이 되었는데, 우리가 여행을 마칠 즈음엔 담대함으로 남편을 만나러 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회복 제국을 하나님께 바친 황제가 있었던 땅이지만 지금은 인구의 99%가 무슬림인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지, 인간의 사고와 한계와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척 기대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가 이것만은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인간이 책임지기에 너무나 크고 넓으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인간이 완벽한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일터방문여행을 마친 지금, 어떻게 보면 원점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여행에서 확인한 선물에의 감동은 일상에 금방 묻혀버렸고, 신자로서의 삶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체험을 가지고 돌아왔기에 계속해서 질문하고 생각할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먼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며 신자로서 붙들고 살아야 할 소망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써 나는 매일 행복과 감사 속에 기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꿈꾸는 중에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바를 비전과 소명으로 찾으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자 또한 선교의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나그네 대접에 힘쓰고 이웃과 친구가 되어 그 필요를 찾는 등,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일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교의 여정이라는 결론입니다.

저는 이번에 주어진 시간과 만남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어떤 대접을 받는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행위로 뒷받침할 필요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고 환영받는 자녀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생각하고 정리한대로 신자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순조롭거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이 시간을 통해 확인시켜주신 나의 정체성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광고〉

1. 남포교회의 교사들을 위한 소식지인 〈깊고 푸른 얼굴〉 시험판 2호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매월 둘째 주 주일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소식지는 PDF파일로 교회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다운받아서
보시거나 출력하실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 각 부서의 소식은 매달 첫째 주 화요일까지 편집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함께 나누고 싶은 선생님들의 글을 모집합니다. 역시 편집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집의도에 따라 원고의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이메일 : nabinaru@gmail.com (윤철규 목사)

〈공모전 안내〉

할아버지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각 부서별로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박영선 목사님께 묻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목사님께 하실 질문을 〈깊고 푸른 얼굴〉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질문을 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깊고 푸른 얼굴

깊고 푸른 얼굴은 성경과 역사에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동시에 학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길로 서 있는 교사의 얼굴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